

# 10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애널리스트 한 마다에 급반전...다우 1만 하회</p>	<p>뉴욕 증시가 21일(현지시간) 장 막판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음. 로치데일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리처드 보베가 웰스파고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주식 매도세를 촉발했음.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92.12포인트(0.92%) 하락한 9949.36을, 나스닥 지수는 12.74포인트(0.59%) 내린 2150.73을, S&amp;P500 지수는 9.66포인트(0.89%) 떨어진 1081.40을 각각 기록했음. 이날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적자전환 및 실적전망 하향 소식에 혼조세로 출발했음. 그러나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야후와 샌디스크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호재로 나스닥이 상승했고, 다우와 S&amp;P500도 뒤이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음. 오후 2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음. 다만 소비는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오후 3시15분 리처드 보베가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조정하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다우 지수는 1만 선을 하회했음.</p>
<p>야후·샌디스크 호재로 기술주 상승</p>	<p>검색엔진 업체 야후는 3분기 순이익이 1억8610만달러(주당 1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년동기 5430만달러(주당 4센트)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된 규모임. 메모리카드 제조업체 샌디스크는 3분기에 순이익 2억3130만달러(주당 9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1억6590만달러(주당 74센트)보다 증가한 것임. 이같은 실적 개선 효과로 야후와 샌디스크는 이날 증시에서 각각 2.85%, 9.54% 상승했음.</p>
<p>베이지북 "미 경제 완만한 회복세"</p>	<p>연준은 미국내 12개 연방준비은행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베이지북에 따르면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 중 12개 연은 지역중 경제활동이 개선된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였음. 부문별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영향으로 주거용 주택과 제조업이 개선세를 보였음. 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부진해졌다. 또 은행의 대출수요는 이전보다 감소했고 대출 회수율도 낮아졌음.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약화됐거나 혼조양상을 이어갔음.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압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압력이 낮은 상황인 만큼,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81달러 상회..1년 최고가 경신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배럴당 81달러대로 치솟으며 1년 최고가를 경신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25달러(2.8%) 상승한 81.37달러로 마감했음.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임. 유가는 이날 장 중 82달러 선으로 상승하기도 했음. 미 에너지정보국(EIA)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한 점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음. EIA는 지난주(16일 마감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가 130만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플래츠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220만배럴을 큰 폭으로 밑돈 것임.
LG電 4Q 실적둔화 `선반영`..中3G폰 수혜 기대-도이치	도이치뱅크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6만원을 각각 유지하면서 4분기 실적 둔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의 3세대폰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도이치는 22일자 보고서에서 "LG전자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그나마도 4분기 실적 악화 우려는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영업마진 정상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봤음. 도이치는 "특히 휴대폰에서 중국 3세대 시장 성장 모멘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 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며 "3세대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에서의 하이엔드폰 비중도 늘어날 것이며 이 경우 LG전자는 판매가격 상승과 마진 확대 등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음.
달러, 14개월 최저로 하락	미국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2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유로에 대해 14개월 최저로 떨어졌음. 오후 3시37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0073달러 상승(유로 가치 0.49% 상승)한 1.5016달러를 기록중임. 유로-달러 환율이 1.5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아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느린 회복을 진단한 후에도 달러는 약세를 지속했음. 달러는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냈다. 파운드는 1.6607달러로 전일대비 0.0227달러 올랐음. 다만 달러-엔은 0.14엔 상승(달러 가치 0.15% 상승)한 90.9엔을 나타냈음.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60포인트(0.79%) 하락한 74.97을 기록,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